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법률'

박지훈 변호사

“법 몰라 손해...상식만 알아도 분쟁 예방”

민사·형사 구분부터 금전거래 대응
상속·유언·증거 확보 등 중요성 강조
고소 당했을때 내용 확인·전략 필요
“법은 일상과 밀접...평소 관심갖길”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이 지난 7일 오후 광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지훈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률 지식을 전했다.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알아도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이 지난 7일 오후 광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지훈(50)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률 지식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형사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영역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어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거래와 관련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체와 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남겨야 한다”며 “말로만 주고받은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라며 “문자·녹음·계좌 기록 등 일상적인 자료들이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과 유언 문제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진행되면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곧바로 출석하기보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경찰 조사 단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음은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핵심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복잡해 보이는 법률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일상 속에서 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법은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평소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찬용기자



‘4월의 5·18민주유공자’ 故 한상일씨



4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고(故) 한상일(사진)씨가 선정됐다.

8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한씨는 1954년 7월 14일생으로 1980년 당시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씨는 후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1984년 5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故 한상일씨는 제1묘역 3구역 8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광산경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광산구 장덕동 성덕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서 교통관리계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차원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용 연필을 배부하면서 안전 보행을 당부했다.

이번인 교통관리계장은 “협력 단체와의 지속적인 캠페인은 물론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집중 배치와 교통안전 저해 행위 단속을 병행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장흥소방, 봄철 화재 예방 캠페인

장흥소방서는 지난 7일 부주의와 전기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둔 '2026년 봄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기후와 야외 활동 증가에 대비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 관계자들은 가두 캠페인을 비롯해 '우리 동네 안전 줄기 데이' 운영, 문고리형 안전 체크리스트 배포 등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대성 예방안전과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화재가 쉽게 발생하는 시기”라며 “군민들께서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혁목기자



광주북구가족센터, 돌봄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광주북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집은 “최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주간 지역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돌봄품앗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회기에서는 돌봄품앗이 사업 안내와 활동 방법, 계획서 및 활동일지 작성법 등 사업 전반

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2·3회기에서는 자녀 대상 프로그램과 보호자 소그룹 모임을 병행 운영해 부모 간 양육 정보 공유와 관계 형성을 지원했다.

마지막 4회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이 진행돼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돌봄품앗이 참여는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집(062-515-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찬용기자



전남도 ‘보건의 날 기념식’...건강증진 의지 다져

전남도는 8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어 자살 예방과 도민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로 안전망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이 기본이 되는 사회,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전남도의원, 담양부군수,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22개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재정기자

유공자 표창에 이어 자살 예방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도민 건강증진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를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 무정면, 오례천 일대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

담양군은 “최근 무정면 이장협의회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130여명이 오례천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무정면 이장협의회는 오례천 주변에 버려진 농촌 폐기물을 수거하며 주민들에게 지방하천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각 마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과 주민들도 오례천 인근 벚꽃 산책길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다.

최병영 무정면 이장협의회장은 “지역 주민들

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환경 정화 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깨끗한 무정면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영 무정면장은 “지역민들과 함께 오례천 등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건조한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와 산림 인접 지역 화기 취급 주의 등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신안경찰 ‘1분기 경찰발전협 정기회의’

신안경찰서는 지난 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노광일 서장을 비롯해 김신규 경찰발전협의회장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공동체 치안망을 구축하고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회원 위촉과 함께 경찰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노광일 경찰서장은 “안전한 신안을 조성하는데 경찰발전협의회가 가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민생치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인사

광주남구 <5급 승진>
▲비서실장 직무대리 황민석
▲미래산업전략과장 직무대리 진지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이사> ▲수급이사 이재욱

부음

▲박수남씨 별세, 이광재전 한국지엠 본부장-홍재전 광주일보 주필-봉재전 세지중 교장-경재(시인·전주대 교수)-경란(이동문학가·동심 대표) 씨 모친상, 임형채(자영업자) 장모상=발인 10일(금) 오전 8시 30분 광주 VIP장례타운 301호(062-521-4444).